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만유가 복종 하는 날<히브리서2:8-18>

* 히브리서를 다시 정리해 드리면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을 가장 확실하게 설명한 책으로 신약의 레위기서이며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에 전쟁과 힘으로 평화가 유지된다는 로마사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헬라사교, 메시아는 절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는 유대사교 등 세 가지 사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뿐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인정할 수 없는 신앙적 혼돈과 유혹과 핍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중 오늘은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1) 예수는 왜 저주의 십자가에서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는가?(2:9, 14-17)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의 기본인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고 온전한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는 몸으로 출생하시어 사람의 죄와 저주를 대속하여 돌아가심을 그 당시 사고로는 진정한 메시아라면 저주의 십자가에서 절대 죽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고로는 인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지혜와 기독교인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은혜와 감동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씀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맛본다>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고통을 몸소 다 체험하시고 죽음 까지도 맛보아 알기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체휼과 긍휼과 자비의 사랑이시기에 예수님의 사랑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완벽한 사랑으로 나를 이해하고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뿐 아니라 그 분을 믿으면 두려움과 공포와 죄와 죽음에서 해방과 자유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재림하셔서 심판이 이루어진 후 그렇게 받은 은혜와 구원과 보증이 실제화 사실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큰 전쟁은 이겼지만 몸과 꼬리는 살아 있는 전쟁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셔서 이겨 놓으시고 우리가 이겼다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심으로 형제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였고 시험을 통과 하셨으며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속량하셨고 우리가 받을 지옥과 저주와 미혹과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사단의 마지막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것입니다.(Already) 그러나 아직은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누리지 못하고(but not yet) 주님의 재림 후 심판으로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조명으로 죄책감이 많아서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으로 공황장애가 올 수 있고 죽음을 앞에 두고 세상 사람보다 더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로 받으십시오. 죄를 짓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는 연탄을 세탁하는 것과 같아서 죽을 때 까지 회개해도 까만 물이 나옵니다. 내가 포기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사단의 마지막 무기인 사망과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칭의로 의인이기에 이 사실을 믿고 누려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2)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승리자로 승천 했다면 만유

가 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가?(2:8,10,17-18)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내주와 교회를 세우셨다면 마땅히 만물을 복종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지배해야 옳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사단의 머리는 깨버렸지만 몸과 꼬리는 살아 있고 지금은 구원의 초림 주가 오셔서 예수를 믿을 수 기회, 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재림 주가 오시면 천하 만물이 복종하고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오기에 예수 믿을 기회와 선교의 기회도 끝나버립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게 하고 성장하여 알곡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고와 상식과 시대의 변함에 요동 받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사고와 세계관과 가치관이 가장 위대하고 완벽하고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은 사단의 머리를 깨어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믿을 기회를 주시지만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시면 아직 사단의 몸과 꼬리가 살아 있는 사단을 죽여 지옥불에 넣고 사람은 휴거하거나 부활하여 심판으로 지옥이나 천국에 들어가고 천지개벽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 아래 천국이든 지옥이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수님께 복종 하는 복종의 나라가 됩니다(히브리서9:28) 그래서 지금은 Already(이미 이루었지만) but not yet(아직은 아니다)입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 없다 라고 말씀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 같은 몸으로 정정당당하게 싸워 승리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끊어진 길을 이어 주신 구원의 길이요 문이요 다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아르케고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가 되셨습니다(히브리서2:10)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이유는 영혼 구원과 성화와 알곡이 되라고 시간을 더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유일성과 우월성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훈련과 주님의 나라에 남은 자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Already(이미 이루었지만)와 but not yet(아직은 아니다) 사이를 승리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의 형제가 됨을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